

목회학 석사 학위 청구논문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in the Doctrines of
Predestination of Calvin and Wesley

2005년 12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목회학 전공)

장 수 영

목회학 석사 학위 청구논문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론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in the Doctrines of
Predestination of Calvin and Wesley

2005년 12월

지도교수 지 명 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장 수 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05년 12월 1일

주심 申 鎭 曠

부심 위 형 을

위원 장 화 선 H. S. Chang

위원 지 명 수

위원 _____

목차

I. 서론	3
1. 연구약사	3
2. 연구동기	6
3. 연구방법	7
II.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론	8
A.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본문의 해석	8
1. 표본성경구절 해석	8
(1)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8
(a) 에베소서 1:4-6	8
(b) 로마서 8:33	10
(c) 요한복음 3:16	11
(2)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인 유기	13
(a) 로마서 9:18	13
(b) 요한복음 6:65	15
(c) 디모데후서 2:20-21	16
(d) 로마서 9:16	18
2. 칼빈이 이해한 예정론	20
(1) 삼위일체	22

(2) 이중예정	23
(3) 예정론에 대한 정리	27
B. 웨슬리의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본문의 해석	29
1. 표본 성경구절 해석	29
(1)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로마서 8:33	29
(2) 선택 안에서 주권과 책임 데살로니가후서 2:13	32
(3)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로마서 9-11장)	33
2. 웨슬리가 이해한 예정론	37
(1) 칼빈주의적 영향	38
(2) 웨슬리의 예정 이해	39
(a)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적 예정	40
(b) 자유의지와 선재적 은총	41
(c) 만인 속죄론	41
(d) 거부할 수 있는 은총	
III. 표본 성구에서 동일 성구에 대한 비교 및 표본 성구 정리	42
A. 동일 성구	42
1. 로마서 8:33	42
2. 로마서 9:16	44
B. 표본 성구 정리	45
III. 결론 및 제안	46
參考文獻	49

I. 서론

1. 연구 약사

예정론은 삼위일체와 더불어 매우 오래 동안 논쟁에 붙여졌던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했던 동시에 잘못 이해되기 쉬운 주제였다. 역사적으로 예정론 논쟁의 초기에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이었고 후에는 어거스틴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이였다. 비록 이미 에베소 공의회(431)와 오렌지 회의(529)¹⁾에서 어거스틴주의 예정론 입장이 채택되었으나 그것도 어거스틴의 전체적 반영은 아니었다. 중세 후기에는 이런 입장들이 키에르시(Quierzy) 공의회를 통해 승리하게 되었고²⁾ 트리엔트 공의회(1545-63)에 이르기까지 스콜라 신학의 배경이 되었으며 카톨릭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보편화되었다.³⁾ 로마 교회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성격’을 거부했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이 어거스틴의 것과 일치한다고 하였다.⁴⁾ 거기에는 어거스틴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오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 중 상당수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한 부분적인 혹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에 들어 초기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예정론이 변증되는 일이 있었지만 진정한 어거스틴의 예정론의 재현은 칼빈과 그의 신학을 따른 16,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견해는 다양하게 이야기 되어졌다. 알미니우스주의

1)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월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 송인철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p.243-244

2)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p. 504-505.

3) 루이스 빌콕, 「교리사」, 신복윤역(서울: 성광문화사 2001) p. 183.

4) 바빙크, op.cit, pp. 506-507.

자들, 즉 항론파들이 예정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부정하고 옛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다시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결국 네덜란드의 도르트에 모여 예정론 문제와 관련하여 항론파와 논쟁하게 된 것이다. 이 때에 소위 ‘TULIP’⁵⁾교리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예정론의 논쟁은 끊임없이 논의 되었고 18세기에 와서도 웨슬리와 핏필드에게서도 나타났다.

웨슬리와 핏필드의 논쟁에 중심에는 예정론이 있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⁶⁾을 제목으로 한 설교는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웨슬리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총으로 이중예정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논쟁은 1770년 9월 30일 핏필드가 죽으면서 종결되었다. 서로의 견해가 차이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인간적인 종결이 아니라 신학적 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사랑을 나눈 사이였다. 중요한 것은 이들사이에 예정의 이해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예정의 연구에 있어서 오늘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칼빈의 예정과 웨슬리의 예정에 대하여 비교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들에 관한 연구 몇 편의 논문⁷⁾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5) TULIP - 전적 타락(Total Depravation),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속죄(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reseverance of the Saints) - 교리가 결정.

6)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를 본문으로 한 것이다.

7) 석사이상의 학위청구논문

최주현은 자신의 논문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의 의지와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자유의지의 비교연구”에서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있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주장하지만 전적으로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웨슬리는 인간의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지만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은 왜곡된 상태⁸⁾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웨슬리 자유의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선행하시는 은혜”로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써, 즉 인간 편에서의 어떤 무엇 때문인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써 원죄 상태의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선한 상태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⁹⁾ 자유의지에 관한 칼빈과 웨슬리는 다른 의견으로 이해하여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에 일치점을 시키며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이해의 일치점을 구하고 있다.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를 발표한 윤정용은 부제에서 ‘칼빈니즘과 웨슬리안니즘의 상호오해의 극복을 위한 시도’를 사용하였고 그것은 칼빈의 예정과 웨슬리의 예정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며,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해하였고, 웨슬리는 ‘선행하시는 은혜’로 이해하였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칼빈은 이중 예정론, 즉 선택과 유기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웨

8)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선을 향한 자유는 잃어버리고 악을 향한 자유의 경향성만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9) 인간의 완전 부패한 본질에 일어난 어떤 종류의 변화가 아니다. 인간의 본질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은 칭의와 중생을 통해서 이기 때문이다.

슬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시는 은혜를 통해 인간을 설득하시고 그 설득에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순종할 것이지 불순종 할 것이지를 택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를 갖던 간에 결과에 있어서 칼빈과 웨슬리는 서로 ‘일치한다’ 전제를 가지고 그 시도를 하고있다.

이러한 시도는 서재주의 “칼빈과 웨슬리의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중심 진리의 이해와 일치 연구”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칼빈과 웨슬리에 있어서 서로의 일치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음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신앙의 실재성”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의 현실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곧 이 역시도 칼빈과 웨슬리의 일치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동기

칼빈과 웨슬리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일치와 불일치에서 이어져 연구되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는 ‘칼빈만이 옳다’ 혹은 ‘웨슬리만이 옳다’고 말하거나 혹은 ‘우리가 혹은 그들이 잘못 이해하였던 것이며 두 사람을 바른 성경적 신학이다’라고 하여 ‘우리는 모두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 발표되는 논문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볼 때에 두 사람의 신학을 통합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였나를 살피는 것이 트렌드를 좇는 신학보다는 바른 신학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예정론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두 편의 논문을 채택하였다. “예정론이 성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¹⁰⁾에서 칼빈이 이해한 예정을 보았다.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¹¹⁾에서 웨슬리가 이해한 예정론을 보았다. 그리고 위 두 편의 논문에서 예정에 관한 표본성 경구절의 이해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10) 김재선, 「예정론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안양대학교, 2000)

11) 이찬구,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석사학위논문:감리교신학대학교, 2003)

II.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론

A.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본문해석

1. 표본성경구절 해석

성경에는 예정과 관련된 구절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 중에 선택과 유기에 대한 대표적인 몇 구절만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해 칼빈은 어떤 해석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성경에서 선택¹²⁾에 대해 언급한 많은 구절 중에서 에베소서 1:4-6, 로마서 8:33. 및 요한복음 6:37-40에 대해서 알아본다.

(a) 에베소서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6항에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6항.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이 영광을 받도록 정하신 것과 같이 그 뜻이 영원하며 가장 자유로운 목적으로 그렇게 되게 할 모든 수단을 사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적당한 때에 역사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며 의롭다 하심과 자녀가 됨과 성화를 받으며 그의 권능으로 믿음을 계속해서 드디어 구원을 얻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효과적인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자녀가 됨과 성화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97.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행복의 기초와 첫째 원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어찌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가, 어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원리로 돌아가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³⁾

바울이 우리는 “창세 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에 그는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한 말을 바꿔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 그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하나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에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몸에서 지체로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¹⁴⁾

엡1:6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의 최종적 원인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다시 12절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 “그는 그 목적을 다시한번 반복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그의 공훈의 그릇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이란 말은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 비추시는 영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13) 존 칼빈, 「에베소서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성서원, 1999, p. 260.

14) 기독교 강요, III. 22. 1.

은 오직 그의 자비로써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¹⁵⁾

(b) 로마서 8:33¹⁶⁾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지니”

바울의 논증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갈 때 유효한 구제책으로 말미암아 공포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적자도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 수가 없으며 더구나 파괴할 수는 전혀 없다.

바울은 또한 그들을 ‘택하신 자들’이라 부르고 있으며 자기 자신도 그들의 수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가 그 같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어떤 퀘변론자들이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경건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지각력에 의해서였다.

칼빈은 여기서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하여 사용된 진술은 바울의 예를 따라 모든 경건한 자들의 경우도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라 하면서 만일 바울이 선택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으로 간주하여 언급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고 하면 이 선택 교리는 아무런 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기가 없는 교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계속해서 칼빈은 모든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할 어떤 것을 바울이 여기

15) 에베소서 주석, p. 269.

16) 존 칼빈, 「로마서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성서원, 1999, p. 33.

서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을 검토하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견고히 하고 있다.¹⁷⁾

(c) 요한복음 6:37-40¹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그의 교훈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완악한 원인은 그들이 버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은 여기서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구별하심으로 비록 많은 사람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는 다 그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은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이

17) 존 칼빈, 「로마서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성서원, 1999, p. 33.

18) 존 칼빈, 「요한복음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편역, 성서원, 1999, p. 227-229.

아니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그저 무분별하게 우연에 따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들에게 넘겨 주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효능으로 그의 택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 아무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순종하도록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 그들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즉시 친절히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뜻에서 믿는 자들을 위로 하시기 위하여 부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르침은 모든 경건한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서는 사람 가운데서 그 결과로 주님이 신실하고 참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목적하시는 바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보되어 있는 구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실족되어 많은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멸

망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언제나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모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부름에 의해서 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그의 소명(부름)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손으로 새긴 도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것과 같은 효능을 지녀야 할 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를 양자로 택하심을 인 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풍성한 증거로써 이에 대해 더 이상 따지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의 단순한 증거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성령님께 무서운 상처를 가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인 유기

유기¹⁹⁾에 대한 많은 성경구절 중에서 로마서 9:18, 요한복음 6:65 및 디모데 후서 2:20을 대표적으로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 로마서 9: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

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7항에서는 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7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혹은 베푸시지 않는 그 뜻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 나머지 인류는 택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그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예정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찬란한 공의에 찬양이 돌아가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마11:25, 롬9:17-22, 딤후2:19,20, 뱀전 2:8) A. A. 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101.

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된 자에 관한 결과가 여기에 말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공화로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서 그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바울은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도록 하려는데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멸망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기를 좋게 여기신 듯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자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차이를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뜻 이상의 다른 원인을 문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와 ‘하고자 하시는 자를’이라는 말씀들에 유의해야 한다. 바울은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박케 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때에는 허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적 진노의 행위를 의미한다. 유기된 자를 어둡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외적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다. 사단도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내적으로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동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예지에 관한여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바울은 경건치 않는 자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지하고 있다고 말

하지 않고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작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솔로몬도 경건치 못한 자의 멸망이 미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멸망할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²⁰⁾

(b) 요한복음 6: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이 성령의 회귀하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방에서 다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온 세상이 복음에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를 비판하고 복음을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어쩌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배척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수가 극히 적은 이유를 대고 있다. 아무도 자신의 직관에 의하여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깨우침을 받기 전에는 눈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참여토록 영광을 베푸는 사람만이 이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훈계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은 성령의 숨은 계시에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

20) 존 칼빈, 「로마서 주석」, pp.304-305.

하시는 취지를 파악해야 하다.

주님께서는 이제 전에 사용하셨던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한 표현 대신에 “내 아버지께서 이끄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우리를 무조건 친구로 삼아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부터 얻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노력이나 부지런함에 의해서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¹⁾

칼빈은 요한복음 해석에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도록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야만 올 수 있음을 말하면서 반대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올 수 없다고 하여 택자와 유기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기 된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c) 디모데후서 2:20-21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신앙심과 영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적절하고 합당한

21) 존 칼빈, 「요한복음 주석」, p. 249.

배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온갖 종류의 설비가 가득한 큰 집에 전시용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못하고 볼품없는 그릇이 있다 해서 잘못으로 볼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벽 선반과 테이블 위에서는 금과 은이 번쩍거리는 반면 부엌에는 나무와 질그릇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 다양성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만일 그의 가족에게 부요하고 풍성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큰집에 여러 가지 가구를 두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해서 놀랄 이유가 무엇인가? 주석가들은 큰집이 교회를 뜻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뜻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문맥은 우리가 그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식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온 세상과 관련시키고 있다. 곧 로마서 9장 21절에서 그는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여기서 사용된 동일한 용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버림받은 것이 수치스러운 노릇이라면 그 수치는 그들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이지 다양한 가구를 그 용도에 따라서 배치하는 가정의 집을 꼴사납게 하거나 그 가정에게 수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예롭고 더 고귀한 용도에 적용시키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의 경우를 통해서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 할 경우 그 상태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하는 점을 마치 거울에 비춰봄과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보기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흠 없는 생활에 전심할 것을 권면할 이유를 다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권으로 밝히는 것들을 인간의 의지와 행위의 권한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아주 경솔한 것이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 16절에서처럼 인간의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멸을 받으려고 태어난 불경건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짙막한 경고는 마치 바울이 인간에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 창세전에 이미 성취된 일을 처리하라고 당부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당부하는 자들을 반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²²⁾

칼빈은 본문 주석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 하려는 자들은 스스로를 불경건한 자들의 오염으로부터 청결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유기된 자들)로부터 오는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케 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d) 로마서 9: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2) 존 칼빈, “디모데후서 주석”. pp 576-578.

바울은 우리가 받은 선택을 우리의 근면이나, 열심이나 또는 노력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명백한 결론을 이 말씀에서 추론하고 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경우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력으로 택할 마음을 갖게 될 만한 어떤 공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단 하나의 견해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같은 택함을 받으려고 원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거저 택하여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추리하기를 우리에게는 택함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논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얻기 위해 ‘원하거나 달음박질한다’고 말하는 것이 생트집에 불과한 것은 원하거나 달음박질하는 자가 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나 달음박질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3)

23) 존 칼빈, 「로마서 주석」, pp.301-303.

2. 칼빈이 이해한 예정론

칼빈은 성경만이 예정교리에 대해 유일한 근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히 성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기 쉬운 두 가지 위험성을 인식하였다. 하나는 과도한 호기심으로 인해 성경이 가르치는 곳에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지나친 소심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하여 그는 말하기를 “예정에 관한 논의는 이미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간의 호기심은 이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위험스럽게까지 한다. 즉 이 호기심은 어떤 울타리 치더라도 금지된 우회로로 빠져나가며 어떤 압력으로 내리눌러도 위를 향해 튀어 오르는 것이다. 그렇게 허락된다면 그것은 탐색도 불가능하고 해명도 불가능한 비밀을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도 남겨 놓지 않을 것이다.”²⁴⁾

칼빈은 또한 “매우 신중하고 소심해서 약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사장시켜 버리고 싶어하는”사람들의 반대적 측면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²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입술을 닫으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또한 탐구의 길을 즉시 닫아야 할 것이다.”²⁶⁾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서 그 안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생략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이 알아야 할 필요

2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III. 21. 1. 김종흡·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7), P. 502.

25) Ibid, III. 21. 4

26) Ibid, III. 21. 3.

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억압하기 좋은 것을 출판했다고 성령을 비난, 조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절제는 항상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침을 멈추었을 때 우리도 현명하게 멈추는 일이다.”²⁷⁾

칼빈은 예정교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적 교리의 유쾌한 열매가 음미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색적으로 되거나 이론화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으며 로마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구원론적 문맥에서 이것을 시도하였다.”²⁸⁾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은 친히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정하셨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작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각각 혹은 이런 종말에 혹은 저런 종말에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밝히 나타난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영원불변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과 멸망에 이르게 할 자들을 결정하셨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에 관한 한 이 계획이 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가

27) Ibid, III. 21. 3

28) F. H. 클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 31.

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공정하고 비난 할 수 없는, 그러나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가 파멸에 넘겨준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폐쇄시키셨다. 지금 선택된 자들 중에 우리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취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칭의를 또 다른 표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소명과 칭의로서 보증하시듯이,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혹은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시켜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신다.²⁹⁾

칼빈이 예정에 대하여 가르친 거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요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칼빈이 이중예정, 즉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교리를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의 전체 교훈은 그가 선택과 유기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칼빈은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 유기 양면을 강조하였다. 선택은 하나님이 값없으신 자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무상의 선택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이며, 이때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다. 한편 유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곧 그의 공의를 나타낸다.³⁰⁾

(1) 삼위일체

칼빈은 예정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한 주권적 사역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하

29) 기독교 강요, III. 21. 7.

30) F. H. 클로스터, *op. cit.*, pp.33-34

하나님의 절대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유한한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작정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결정은 영원불변하며 지체로우며 거룩한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체 사건과 관계하여, 천사와 사단, 성도와 불신자들의 전 도덕적 피조물들의 운명과 전활동을 포괄하여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참으로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주의 주권적 지배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이중예정(선택과 유기)

선택은 예정론의 특수한 적용 즉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예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신 사람들을 영원 전에 확정하셨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오직 자신의 선택하시고 기쁘신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의의 최고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이 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아무 허물이나 오류가 없더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먼저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택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기로 예정하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이다.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생명을 신앙으로 취하며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인도되고 그러한 생명이 어떤 한 샘에서 흘러나오는가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하였다. 즉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도록 예정된 사실의 결과로 인하여 성도의 구원의 보증은 그리스도에게 기초되어 있는 불변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원과 생명,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다는 말이다. 그 분만이 참 생명의 원천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3:16). 그는 하나님으로서 성고다 가려는 목적지가 되시며 걸어가야 할 참 길이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목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선택은 단순히 구원의 대상과 결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어두시지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실 때에는 무차별 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탐구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견인을 첨가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또 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그리고 바울이 생명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이겼노라고 당당하게 발음을 하는 이유도(롬8:38) 여기에 있다. 그의 자랑은 견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칼빈은 선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고아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그는 예정론에 관한 논문에서 “다라서 만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면 영원하신 선택이라는 사상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성도들에게 있을 거룩은 그 선택에서 유래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의 속에서 칼빈은 전 구원의 원인인 선택의 경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원의 동력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질료인은 그리스도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칼빈이 유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결 요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정당한 유기”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

대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하는 시도로 즉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이 그 충분한 원인이 되는 허용과 인간의 범죄함이 한 쌍을 이루어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를 견지한 입장이다.

칼빈은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에 대해서도 신적 행위에 최초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유기 역시도 궁극적인 원인이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뜻”에 그 기원을 두었다는 말이다. 특별히 이러한 그의 입장은 로마서 9장 18절의 해석에서 분명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칼빈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제일 원인으로 인간이 범한 죄악은 주께로부터 하락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작정)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재난이 생기는 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31)

그렇다면 죄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유기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그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여기시기도 하시고 강박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멸망하는

31) 기독교 강요. III. 23. 9.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초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예정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본서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본성에 따라 의를 사랑하시며 불의를 미워하신다. 그 때문에 칼빈은 분명하게 유기를 폭군적인 잔인성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로 봐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³²⁾

(3) 예정론에 대한 정리³³⁾

첫 번째,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전의 주권적 사역이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

세 번째, 예정은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유기되었다.

네 번째, 때문에 예정은 전(全)구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모든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중보자와 머리로 전구원의 기초를 삼으셨다.

32)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으나 말하겠느뇨”(롬9:20)

33) 박상봉,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2000).....

여섯 번째, 선택에는 구원의 서정(방식, 길)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선택이 구원의 모든 은택의 샘으로서 그로부터 신앙과 거룩, 다른 구원의 은사들, 마지막 영생까지 그 열매로서 나온다.

일곱 번째, 반면 예정이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그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안에는 없고, 오직 인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에서 제외하셨기 때문에 죄 아래서 멸망 받는다.

여덟 번째, 선택과 유기는 각 인생의 고유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드러나고 확증된다.

B. 웨슬리의 예정론과 성경본문 해석

1. 표본 성경구절 해석

(1)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로마서 8:32-33)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값없이 사랑하는 분이다. 그 사랑(은총)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의 은총은 그것을 받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않는다.³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정과 유기에 대하여 웨슬리는 말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를 듣게 되건 아니건 간에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설교의 목적이 그들에게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또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게 되건 아니건 간에 그들은 틀림없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목적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설교를 듣는 것이 헛된 것만큼이나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헛된 일인 것이다.”³⁵⁾

34)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역, (서울: 땅에서 쓰신 글씨, 2001), p. 180.

35) Ibid., p. 184.

이것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리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다. 더불어 웨슬리는 “예정의 교리는 성화의 몇몇 특별한 가지들을 잘라 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그것은 온유함이나 사랑과 같은 덕목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원수들에 대한 사랑, 감사할 주 모르는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교리를 믿는 자는 온유함과 사랑의 덕목을 지니기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반대되는 기질을 불러일으키거나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가 주는 행복은 신앙의 위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교리는 신앙이 주는 행복을 소멸시키는 경향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정하심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요, 창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결정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 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정하심은 정녕 영원 전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려 내시고자 하실 때 이에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게 되는 이 정하심은 이제 ‘궁창의 영원한 증인인 달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다. 이 정하심에 관한 교리는 모든 선한 행실과 모든 성결함에 부요케하는 가장 확실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끝이없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 준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을 가장 고려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주는 것이

다.

기독교 모든 부분뿐 아니라 전 영역이 이것과 일치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그의 모든 사도들도 이에 대해 증거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바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증거하는 바는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 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18:20)는 말씀이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³⁶⁾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³⁷⁾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은 장소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³⁸⁾말하고 있다.

이 본문에 대한 웨슬리의 설교는 복음주의 내의 중요한 분열을 표시해주는 것으로써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설교의 본문이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칼빈주의적인 형태의 예정론에 대한 전적인 거부³⁹⁾이기 때문

36) 요7:37

37) 행17:30

38) 약1:5

이다. 그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우스주의자’간의 교리적인 대화의 범위를 심히 축소시키게 된 것이다.

(2) 선택 안에서 주권과 책임(데살로니가 후서 2:13)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아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2:13)

이 구절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심으로 성도들이 믿음과 성화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 시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의 구조를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차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εἰλατο υμας ο θεος απαρχην)”에서 예정론을 구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은 예정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대상이 역사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었다. 이 예정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두 가지 극한의 주체들이 동시에 출현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인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인 “인간”이다.

39)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역, (서울: 땅에서 쓰신 글씨, 2001), p. 177.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서 거룩하게 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진리를 믿음”에서 믿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신자이다. 그런데 이들이 예정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구원에 있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의 의지도 희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공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구원을 위한 예정이라는 한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책임성을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임 아니다. 앞 구절 12절과 15절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순되지 않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3)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마서 9-11장)

로마서 9-11장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모든 구속 과정을 강한 확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울의 관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로부터 예정을 생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9:6-24은 하나님의 행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옹호하고 9:30-10:21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유대 박성들의 부적합함을 설명함으로써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았으며 11:1-36은 모든 계약 안에 있는 개선된 상황의 부요함을 설명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단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
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
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9:13-16)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닌 권이 없느냐”(롬9:19-21)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선택과 거부
를 지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민사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바울은 이
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
는 것이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지옥을 가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저주를 받은 백성이었던 이방인들
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은혜로운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롬9:6-8)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롬9:24-25)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틀에 의해서 다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조건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계약적 관계에 의해 다시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타락과 선민의식이라는 교만으로 가득차서 그들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잘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룩한 새로운 계약의 효력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 백성은 약속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니 차별이 없느니라”(롬10:11)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

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3)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다. 즉 본문이 강조점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주권인 것이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모든 예정론의 결정적인 귀결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2-33)

로마서 9-11장에 나타나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호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됨 없이 자신의 선하게 여기시는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예정하신다. 그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선택의 차이나,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차등서이 인간의 행위와 조건 심지어 선민의 특권마저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 10:13에서 구원에 대해 말할 때에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완전히 인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울은 9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의 주권에 의지한 예정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적용에서는 10장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인한 의지적인 자유의 선택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1장에서는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예정론에서 모순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의 깊이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신비 속에서 인정하고 있다.

2. 웨슬리가 이해한 예정론

선행의 은혜는 웨슬리에게는 성경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말 자체는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선행하시는 은혜의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성경적 가르침과 진리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선행하시는 은혜’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은 보편적인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요한 서신에서 빛이라고 언급된 것도 그리스도의 선행적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선행의 은혜를 의미한다.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 지식,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 선과 악에 대한 부분적 지식,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 선과 악에 대한 부분적 지식, 양심 등이 모두 선행하시는 은혜의 작용의 결과라고 보았다. (롬2:12-14)

웨슬리는 “자연적 양심”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진 양심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선물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의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간주하였다.

선행하시는 은혜의 시작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직후로부터 보았다. 창세기 3:15에 있는 “최초의 복음”은 구원의 약속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범죄한 그 직후에 구세주를 약속하심을 인간에게 미리 주신 은혜이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총은 시작하였다. 즉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도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행14:16-1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행17:27)이라는 구절들이 선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⁴⁰⁾ 선행의 은혜에 대한 개념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그의 설교에 잘 나타나있다.

(1) 칼빈주의적 영향

웨슬리의 가정은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자들로서 웨슬리에게 칼빈의 중

40)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 pp. 108-109.

교개혁 신앙을 만나게 해 주었다. 웨슬리의 증조부 바돌로매와 외조부 사무엘 어네슬리 그리고 그의 조부 요한 웨슬리는 모두 청교도들이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그의 가정의 전통적인 청교도주의를 통해서 칼빈의 신학을 접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웨슬리는 그의 가정의 전통인 청교도주의를 통해서 성서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칼빈의 사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웨슬리의 부모는 극단 칼빈주의와 결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만인 구원설을 견지하였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예정을 말하는 이중예정론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배격하였지 칼빈의 신중심적 복음주의 신학 사상을 모두 배격한 것은 아니다. 즉 웨슬리는 1725년에 열렸던 감리교 제2차 연회록에서 “참된 복음은 칼빈주의와 매우 가깝다”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의 신 중심주의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웨슬리의 예정 이해

(a)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적 예정

웨슬리는 칼빈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매우 중요하였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칼빈과 같이 바로와 에서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재적 은총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자유의자가 있으므로 바로의 굳어짐은 자신의 완고함과 회개치 않는 것에서 기인하며, 그로 인해 바로는 형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에서는

후에 죄를 깨닫고 야곱과 화해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즉 웨슬리는 처벌의 이유가 인간 자신의 자유 의지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공의가 덧붙여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적 예정’이다. 칼빈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다 작정해 놓고 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이미 구원할 자를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말한다. 웨슬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이 만물을 일견에 다 보시는 하나님의 예지 속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정하셨다고 하였다.

(b) 자유 의지와 선재적 은총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을 이해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이 선택의 조건임을 말한다. 선택이 조건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곧 자유 의지적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해하는 능력, 의지를 실천하는 자유와 의작 내포되어있다고 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본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재적 은총의 선물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들일 능력을 회복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웨슬리는 먼저 타락한 이성을 자극하는 성령의 활동적 은총으로서 선재적 은총을 말한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일깨워지는 것이다.

둘째로 선제적 은총으로서의 양심을 말한다. 선제적 은총인 양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며 율법과 만날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양심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규칙이며 우리의 언행심사가 그 규칙에 찬성하는지 반재하는지 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은총으로서의 자유 의지를 말한다.

(3) 만인 속죄론

웨슬리는 “냉정하게 고찰된 예정론”⁴¹⁾에서 성경에 근거한 예들을 진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위해 죽으셨음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4) 거부할 수 있는 은총

칼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에 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제적 은총은 구원하는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은총으로 개인의 생명 속에서 활동하신다. 선제적 은총에 의하여 자유의지를 회복한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저

41)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아담 안에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며 구원을 받을 사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아담 안에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며 구원을 받을 사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한병기, 「개혁주의 강론」, (서울: 규장문화사, 1996), pp. 157-158

항할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Ⅲ. 표본 성구에서 동일 성구에 대한 비교 및 표준 성구 요약

위의에서 나타난 표준 성구와 기독교 강요, ‘값없이 주는 은총’의 웨슬리의 설교를 토대로 동일성구에 대한 비교와 칼빈과 웨슬리의 예정에 대한 표준 성구를 표로 정리한다.

A. 동일 성구

1.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로마서 8장 33절)

위 구절을 표준성구로 두 논문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시기와 때는 논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택함을 받는다. 성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데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에 자유의지의 문제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되돌아 갈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 없다.⁴²⁾ 는 것은 개혁주의의 전통이요 웨슬레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이며 하나님을 용납 또는 배격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로 선행적 은총이 인간 속의

42) 콜린 윌리엄즈,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역(서울: 전광사, 1993) p.45.

신앙을 용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하는 것이다.⁴³⁾ 웨슬레는 고전적 개신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의인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의 은총인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⁴⁴⁾ 인간에게 있어서 선행 은총을 통하여 선과 악의 구별 능력, 야심, 선택과 책임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고 있다.⁴⁵⁾

이러한 웨슬리의 이해에 있어서 로마서 8장 28-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이라는 등급을 표시하는 용어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한 문장 안에서 묘사되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이미 그 당시에 공인된 전통적인 교훈은 이렇게 영원과 시간이 잘 조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양보하지도 않고 인간의 가능성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희생시키지도 않는다.⁴⁶⁾

그러나 칼빈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와는 다르게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는 적극적인 예정”이다. 그 선택은 개인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표현된다. 우리 본성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모독”⁴⁷⁾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란 “그 안에서 전 인류가 택함을 받은 것”⁴⁸⁾으로 말하는 신학

43) Ibid, p.43.

44) Ibid, p.48.

45) 이성주, 「웨슬레 신학」(서울: 다니엘 출판사, 1991), p.144.

46) 이한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스도의 책임-바울 서신에 나타난 선택과 구원의 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성경신학적 접근”, 「신학지남」(91년 겨울호, 제58권 4권 통권 230호), pp.71-72.

47)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6) p.156.

자도 있다. 칼빈은 피기우스에 대하여 논박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설명한다. 칼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한다. 이 처럼 예정에 관해서 성령이 사역을 논할 때는 개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비로소 설명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결코 모든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일반은총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택함 받은 개인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나 모든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⁴⁹⁾

2.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로마서 9:16)

이 성경은 유기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 웨슬리의 이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주 받을 백성이었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은혜로운 복음이라는 것이다.⁵⁰⁾ 하지만 칼빈은 여기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에서 추리하기를 우리에게는 택함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논증한다. ⁵¹⁾

48) 밀라드 J. 에릭슨, 「구원론」, 김광렬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115.

49) 존 칼빈, 「칼빈의 예정론」, p.166.

50) Ernst Käsemann, 「로마서」, 국제성서주석, p.476.

B. 표본성구 정리⁵²⁾

존 칼빈		존 웨슬리	
선 택	민수기11:25-26 사무엘상23:11-12; 시편33:11-12;105:6 에스겔36:26; 마태복음24:22; 24:24; 24:31; 11:21-23; 17:12; 25:41; 1:21; 22:14; 20:14-15 마가복음 13:20; 13:22; 13:27 요한복음 1:5; 15:16; 15:19; 8:47; 10:27; 17:16-19; 18:9; 19:11; 13:1; 10:3; 10:34-35; 10:15; 17:2-3; 17:6; 17:9; 13:18; 6:44-45; 6:65; 6:39; 10:11 로마서11:28; 9:16; 9:23-24; 9:27; 8:28-29; 11:5-7; 8:30; 11:33 갈라디아서 4:4-5; 4:9; 에베소서1:9; 1:11; 2:10 디모테전서5:21 잠언 16:33 디모테후서 1:9; 2:10; 2:21; 고린도전서 1:24; 1:27-29; 데살로니가전서 1:45;9-10; 데살로니가후서 2:13; 3:2; 1:26; 히브리서 6:17; 12:23, 야고보서 1:13; 1:17 베드로전서 1:1; 1:12; 2:9; 5:13; 베드로후서 1:10; 빌립보서 4:3 디도서 1:1; 2:14	창세기6:5; 16:8 출애굽기10:21; 1:25 레위기18:21; 신명기4:26; 30:19 사무엘하1:20; 욥기38:7; 시편4:6; 89:37;145:9; 133:8; 139:7-8 열왕기상12:16 잠언3:17; 애가:2:20; 예레미야23:17; 32:25 스가랴3:2; 이사야1:20 33:14; 57:15; 66:1; 14:12 에스겔 37:2-6 마태복음6:34; 12:43; 11:15; 10:28 25:46; 25:1 11:28; 23:37; 24:35 누가복음1:52; 5:17; 5:23; 7:30; 19:41 마가복음9:43; 요한복음15:19; 23:34; 1:14 로마서5:5; 5:6; 5:8; 8:16; 8:29; 8:32; 9:11-12 11:5; 9:16; 9:13; 9:26; 9:19; 9:20 9:22; 고린도전서15:14; 15:54; 15:55 고린도후서10:1; 2:8 갈라디아서3:27; 에베소서2:5; 골로새서3:12; 2:15 디모테전서 2:4 히브리서6:4-5; 8:16; 10:22 야고보서5:19-20; 베드로전서1:2; 2:22; 5:8; 유다서1:7 요한1서2:1; 2:27-28; 3:14; 4:16; 요한계시록14:11;	
	롬 9:13; 9:29-23; 마태복음 11:25-25; 13:11-13 요한복음 8:47; 유다서 1:4; 잠언 16:4; 베드로전서 2:8-10; 베드로후서 2:12; 요한일서 2:19; 요한계시록13:8; 17:17		총
유 기			

51) B. B. 워필드, 「성경신학연구(1) 구원론」, (서울: 엠마오, 1989), p.72.

52) 기독교 강요, III. 21-23.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홍기, (서울: 땅에 쓰신 글씨, 1993), pp.170-180.

III. 결론 및 제안

현재는 칼빈과 웨슬리의 일치론을 추구하는 신학적 분위기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도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칼빈과 웨슬리는 다른 성구를 사용하여 예정에 대한 이해 혹은 설명을 한다. 더욱이 ‘값없이 주는 은총’이란 설교에서 웨슬리는 칼빈의 예정론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성경의 구절 속에서도 다른 이해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두 신학자의 신학이다. 웨슬리는 1739년 4월 26일 그의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출판하기로 결심한 때에 그의 책에서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그에게서 논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칼빈과 웨슬리의 이해를 일치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을 것을 보이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칼빈이 아닌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와 정의 분명해질 때 이들의 신학적 일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현재에서 신학적 일치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이다. 또한 연구의 있어서 어디까지가 극단적 칼빈주의이며 조금 더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반드시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무슨 말을 하든 사랑과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론을 펴게 될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는 말이 드리게끔 해 주십시오.”⁵³⁾라고 하였다.

‘예정’은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야 주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다. 다만 교부들 사이에서 언급은 있었으나 분명한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어거스틴은 예정을 예지가 포함된 형태로 이해하였으며 예정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저주와 그 방편들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점과 생명의 예정은 순전히 주권적이며 영원한 죽음으로의 예정은 역시 심판적이며 인간의 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인식하였다. 예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방법은 예정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식이었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과 시대적 트렌드는 변화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고 미칠것이다.

두 신학자(신앙인)는 분명 성경해석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졌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시대 인물이 아닌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수⁵⁵⁾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이해도를 가지고 그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일치의 연구는 몇몇 논문들을 살펴볼 때에 오늘날 신학의 방향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

칼빈은 장로교로 웨슬리는 감리교로 서로 다른 교리에 영향을 주었고

53)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저, (서울: 땅에서 쓰신 글씨 1998), p. 179.

54) 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 이상원,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p. 311.

55) 어떤 추측되는 전제

이는 교회정치와 신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교단의 구별할 수 없는 것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것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어서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예정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들이 동시대 인물이 아니며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신학을 피력한 것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나 이들의 예정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하는 방법은 이 논문에 있어서 중요한 객관성을 확보 할 것으로 생각한다.

◆ 參考文獻 ◆

1. 한 서

김흥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과 사회적 성화운동」, 존 웨슬리와 현대 목회, 감신대출판부, 1993.

박세환, 「존 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도서출판 영문, 2001.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아가페 문화사, 1998.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_____, 「칼빈 칼빈주의」, 도서출판 아가페, 1995.

이성주, 「웨슬레 신학」, 다니엘 출판사, 199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한국신학연구소, 1997.

정성구, 「칼빈主義 思想大系」, 총신대학출판부, 1998.

조종남, 「존 웨슬레 신학」,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해설」, 대한기독교서회, 1998.

한병기, 「개혁주의 강론」, 규장문화사, 1996.

2. 역서

버트너 로버트 · 차일즈 로버트, 「웨슬리 신학 개요」, 김운기, 전망사, 1988.

벌코프 루이스,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성광문화사, 1998.

_____, 「조직신학 상 하」, 권수경 외1,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에릭손 밀라드 J, 「구원론」, 김광렬,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빌헬름 노이저, 「칼뱅」, 김성봉, 나눔과 섬김, 2000.

방델 프랑수아, 「칼빈 그의 신학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웨슬리 존, 「존 웨슬리의 설교」, 김흥기, 땅에 쓰신 글씨, 1993.

_____, 「웨슬리 총서 5·9」, 김용옥 외, 웨슬리 사업회, 1983.

칼빈 존, 「기독교강요」, 김종흡외 4인, 생명의 말씀사, 1998.

_____, 「기독교강요 요약」, 이형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_____, 「기독교강요 초판」, 양낙홍,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_____, 「에베소서 설교」, 김동현, 솔로몬, 1995.

_____, 「聖經註釋 3·6·7」,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성서교재간행사, 1993.

_____,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기독교문화협회, 1996.

윌리엄즈 콜린,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 전망사, 1993.

바빙크 헤르만,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CLC, 1998.

_____,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 CLC, 1998.

_____,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곤잘레스 후스토 L, 「기독교 사상사III」, 이형기 외1,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미터 헨리, 「칼빈주의」, 박윤선 외1,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3. 양 서

Calvin. John, "Calvin's Calvinism", Edited and translated by Henry Cole. Grand Rapid: Eerdmans, 1959.

Wesley, John, "The works of wesley", Vol I·II·III·IV, ed. Albert C.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6.

4. 논문 및 자료

서재수, 「칼빈과 웨슬리에 基督教 宗敎에 있어서 중심 眞理의 理解와 一致연구」 석사학위논문: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2004.

안병대, 「J, 칼빈과 J, 웨슬레의 K, 바르트 예정론 비교」, 석사학위논문:장신대학교, 1986.

윤정용,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목원대학교, 2004.

이철웅, 「예정론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신대학교, 2000.

정재돈, 「칼빈의 예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3.

조기호, 「웨슬레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석사학위논문:호서대학교, 1995.

최주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인간의 의지와 웨슬리 신학에 나타난 자유의지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목원대학교, 2004.

이한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스도의 책임-바울 서신에 나타난 선택과 구원의 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성경신학적 접근”, 「신학지남91」, 겨울호, 제58권 4권 통권 230호.

기독교 신학저널. 4호, 기독교신학 대학원 대학교, 2003.